양계 안테나

김 용 화
(본지 편집장)

IMF 시대의 양계업 생존 전략

국민소득 1만불 시점에서 2만불 고지를 향해 뛴다던 우리나라 경제가 비효율적인 경영관리와 나태로 인하여 일거에 5천불 수준 이하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아 온 국민이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말았다.

외화부족으로 단기채권상환은 물론 수출용 원자재수입, 생필품 생산용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결제가 마비되면서 부득불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신 채권자인 IMF의 구조조정 요구에 전격 합의한대로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양계업계까지 심한 감기증세가 나타나 연일 전국의 농장에서 기침소리가 나더니 급기야 숨넘어가는 가래끓는 소리로까지 병세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듯하다.

수입개방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히 시설자동화를 서둘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기반이 비대해져 만성적인 적자경영에 시달리면서 일부 농가는 부도까지 내는 극한 상황을 보여왔다.

또한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국내 경기 흐름의 판도가 바뀌어 양계인들이 이에 적응하기도 전에 IMF 한파가 몰아닥쳐 양계인들의 심장까지 얼어붙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환율 폭등으로 우선 사료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된 것은 차치하고 가격 면에서 과거 같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조차 없는 40~45%대까지 급등하여 원가절감이 무색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하면, 엎친데 덥친격으로 신용거래가 마비되면서 실물거래 위주로 바뀌어 현금이 없는 농가는 닭을 굶기거나 조기에 도태를 시켜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시설자동화시 주로 수입산 기자재를 도입한 농가들은 외환 리스자금을 사용하여 환차손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결과가 나타나 엄동설한에 빙판길에 세워진 자동차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양계인의 선택은 두가지로 압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하나는 전 양계인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국내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감산운동을 전개하여 공존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철저히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개별농가의 경영능력에 따라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 두가지이다.

후자의 경우대로 흘러간다면 양계업의 기반이 급속히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 수십억씩 들인 시설들이 그대로 고철로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경기 침체기에는 평시 보다도 생산량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려는 기본틀은 고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MF시대 이전에 우리 양계업도 외부 자본을 빌려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해오지 않았나 반성을 하면서 감량경영, 경영 합리화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계산물 출하 후 대금회수에 내실기하자

계란과 육계를 출하하는데 있어 수년 전만해도 현금에 가까운 거래질서가 있었다. 결제일은 다소 지연이 되었어도 요즈음과 같이 어음의 남발은 없었다.

최근들어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신용거래의 규칙이 무너지고 예전처럼 실물거래 형태로 바뀌고 있음에도 우리 양계업계는 아직도 어음결제가 많고, 출하 후 일정한 기일도 없이 대금을 정산하는 날에 현금이 아닌 몇 개월짜리 어음으로 판매대금을 받는 것이 현실이었다.

일부에서는 사료구입 조건이 바뀌는 등 농장에서도 여타 생산자재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출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주는대로 받는 식의 약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이 더 감소될 뿐 아니라 만기일까지 마음을 조려야 하는 고생을 하고 있다.

거래란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요즈음과 같이 경기가 불안정하여 양계인들은 현금을 동원하여 산물을 생산하는데 출하할 때에는 주는대로 받는다는 식의 거래를 계속한다는 것은 부실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과감하게 현금이 아니면 계란과 육계를 내줄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힘을 모아야 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려웠어도 산물의 수요가 증가일로를 걸어왔기 때문에 순환의 맥은 끊어지지 않았다.

모두가 단결의 필요성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제가 달라진다. 물가상승율이 높아질수록 상인들은 최대한 결제를 늦추어 그 편차익을 높이려 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유통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양계인의 중지를 모아 산물출하대금 결제 방법의 개선책을 모색해 대처를 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인식했으면 한다. 실업자가 늘고 신용이 악화되면 결국 정보에 어두운 외진 농가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입힐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시 가격상승후 수입급증으로 양계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양계업이 국내 경제위기와 맞물려 사실상 갈림길에 서 있다. 연일 통보되는 사료공급 불가와 유류가 인상,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생산비가 대폭 상승함과 동시에 경기가 더욱 나빠져 양계산물 소비는 바닥권 보다도 더 내려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화난, 환율상승이 양계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당장 사료가격이 45%까지 치솟는 가운데 현금이 아니면 공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일방적인 통고를 받고서야 IMF의 한파나 경제난국을 실감하고 있는 듯하다.

현금이 없어 사료확보가 안되어 병아리를 입추하지 못하거나, 출하물량을 조기에 처분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시적이나마 계란과, 육계가격이 올라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면 자칫 양계업의 생산기반이 서서히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우리 양계인들은 그간 세계화란 말에 도취되어 시설자동화만 하면 그 자체가 곧 경쟁력인 것으로 맹신해 오지 않았나 반성을 해야 한다.

환율이 높게 유지되어 수입산물이 경쟁력을 잃어 국내 산물가격이 생산비 인상된 것에 비례해 인상되면 당분간은 그런대로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해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위험천만한 일이라 보여진다.

고환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상당 기간이 지나면 1,000원대로 접근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 국내의 생산비는 높아졌고, 기반은 많이 축소가 되어 유통가격이 높아지면 양계농가의 소득은 일정 수준까지 보장이 될지는 몰라도 경제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환율이 내려간다면 수입은 급격히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수출국에서도 이같은 헛점을 잘 분석하고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번 올라간 생산비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환율이 내려가는 만큼 사료가격, 유가 등 모든 중간 자재값도 내려가겠지만 인상전의 수준으로 되돌아 가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경제구조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양계인들이 앞장서서 가장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여 경기 변화에 따라 급격한 국내 생산기반 붕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농장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타 분야처럼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의 운영에 참여해서라도 고통 다음에 허약해진 틈을 타고 수입산물이 본격적으로 밀려오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할 대비책을 세우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양계